



# AFC “손흥민 월드클래스 선수” ‘최고 아시아 출신 해외파’ 선정



맨시티전 3골, 챔피언스 리그 결승 전인 등 상승가도 화려한 득점포·활동량 장점 내세워 토트넘 EPL 톱4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28·토트넘)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출신 해외파’ 중 첫 손에 꼽혔다. AFC는 홈페이지 글을 통해 “수십년간 여러 아시아의 훌륭한 선수들이 널리 진출해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면서 그중 가장 뛰어난 네 명을 뽑았다.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은 단연 손흥민이었다. AFC는 첫 번째로 손흥민을 내세우며 ‘월드 클래스 선수’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손흥민은 AFC 가맹국 선수로 자국 리그를 떠나 해외 무대에서 뛰는 선수 중 좋은 활약을 보여준 이에게 주는 ‘AFC 국제선수상’을 2015, 2017, 2019년 받은 바 있다. AFC는 “손흥민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자, 아시아가 배출한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일 것”이라며 “16세 때 독일로 가 합부르크 유소년팀에 합류한 이후 많은

성공을 누렸다”고 전했다. 또 “함부르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20세엔 바이어 레버쿠젠에 영입됐다. 이적료는 구단 역사상 최고액인 1000만 유로(약 134억원)로 알려졌다”면서 “이후에도 손흥민은 상승가도를 달렸다”고 활약을 소개했다. 이어 “2015년 여름에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 3000만 유로에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여기서 그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에선 팀이 꾸준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톱4’에 들고, 지난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데에도 앞장섰으며, 특히 맨체스터시티와의 8강전에서 3골을 터뜨린 건 많은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AFC는 “화려한 득점포와 지치지 않는 활동량, 상대도 웃게 하는 미소로 손흥민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고 극찬했다. 손흥민 외에 4인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이란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약했던 메디 마다비키아(43), 다양한 유럽 리그에서 뛰 일본의 스타 혼다 게이스케(34), J리그에서 기량을 뽐낸 태국 출신의 수비수 티라톤 분마탄(30)이었다. 연합뉴스

## 제주utd 브라질 베테랑 공격수 에델 영입

빠른 스피드, 개인기 큰 힘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브라질 출신 ‘베테랑 공격수’ 에델(33)을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델은 2015시즌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2 무대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17년 전북 현대, 2018년 성남FC를 거치며 K리그 통산 149경기 31골 12도움을 기록 중이다.

제주에선 등번호 77번을 달고 뛰게 된다. 지난해까지 성남을 이끌었던 남기일 감독은 에델의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가 제주의 전력 보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델은 입단 소감을 통해 “다시 한 번 남기일 감독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팀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실력뿐만 아니라 출신수범하는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이 따를



제주유나이티드에서 등번호 77번을 달고 뛰게 된 에델.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남 감독은 “에델은 공격 2선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며 “외국인 선수이지만 원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 리빙딩하는 제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손혁 감독 김광현 걱정 “터놓고 얘기 힘들 것”

김광현 SK서 펠 당시 투수코치... ‘스승과 제자’ 리그 개막 연기·선발 진입 경쟁 힘든 심정 고백

“(김)광현이는 혼자 거기 있잖아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힘들 겁니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손혁(47) 감독이 ‘옛 제자’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을 걱정하면서 한 말이다.

김광현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고 현재 복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냈다.

그는 “나한테만 불행한 것 같은 시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수없이 되뇌어도 위로가 안된다”며 “반복적인 훈련, 똑같은 일상을 지냈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련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딜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힘들다. 하지만 또 참아야 한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히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자체 청백전 뒤에 만난 손 감독은 미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김광현에

대해 “최근에 얘기를 한번 하긴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메이저리그는 언제 개막할지 우리보다 더 기약이 없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쫓기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그래서 영화도 보고 지금까지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연락도 하라고 조언해줬다”고 부연했다.

김광현은 2주 전인 이달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세인트루이스의 5선발 자리를 무난히 꿰찰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범경기가 중단된 데다 메이저리그 개막도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실망감에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홀로 훈련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SNS를 통해 힘든 심정을 고백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감독 역시 “(김)광현이는 혼자 있으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광현이에게 한 번씩 연락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김광현이 SK에서 활약



ins스타그램에 힘든 심정 밝힌 김광현. 팔꿈치 수술로 재활에 힘쓸 때부터 한국시리즈 우승과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스승과 제자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꿈꿨던 김광현은 늘 손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금의 등 번호인 ‘33’도 김광현이 직접 손 감독에게 물어 선택한 번호다. 연합뉴스

할 때 투수코치로 재직했다. 팔꿈치 수술로 재활에 힘쓸 때부터 한국시리즈 우승과 메이저리그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스승과 제자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꿈꿨던 김광현은 늘 손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금의 등 번호인 ‘33’도 김광현이 직접 손 감독에게 물어 선택한 번호다. 연합뉴스

## “1997년생 올림픽 출전 허용” AFC·FIFA·IOC 공식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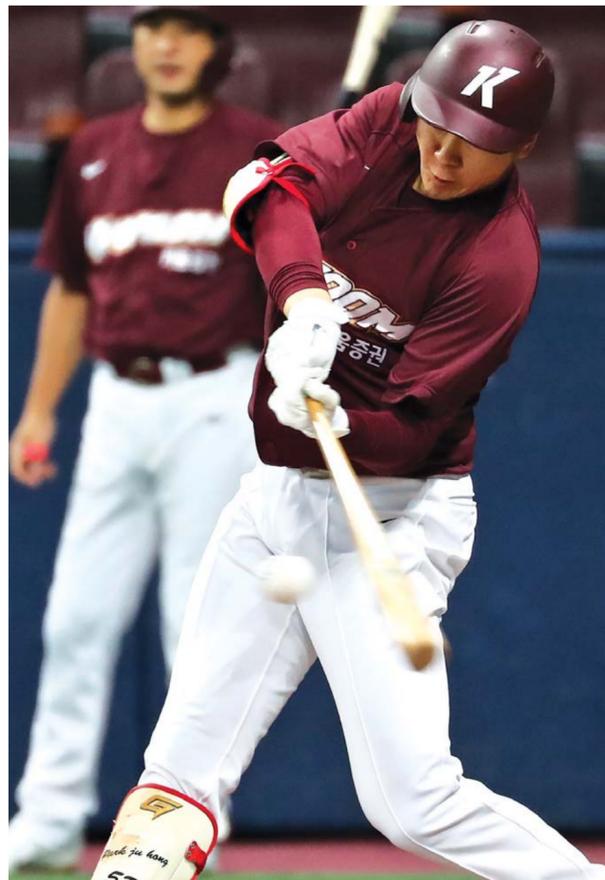
대한축구협회가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나이 제한으로 출전 자격이 불명확해진 선수들의 대회 참가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26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냈다고 밝혔다.

만 23세 이하로 연령 제한(와일드카드 제외)이 있는 올림픽 남자 축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이 서신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전달됐다.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예선을 통과할 때 주축이었던 1997년생 선수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출전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축구협회는 서신을 통해 “올림픽 출전을 위해 예선을 치르고 준비해 온 선수들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회가 연기돼 본선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참가 권리 보호를 주장했다.

또한 “올림픽 개최 시기만 조정된 만큼 본선 진출을 달성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선 무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요청한다”며 1997년생 선수들의 도쿄올림픽 참가 허용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2루타 정도는 쉽지” 26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 자체 청백전인 홈팀과 원정팀의 경기에서 2회 초 1사 때 원정팀 박주홍이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 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강 인 종**

제15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회장 강원희 의 회원일동  
진주강씨 제주도정량공파문중회 회장 강길현 의 회원일동  
진주강씨 제주도청년회 회장 강영로 의 회원일동  
진주강씨 제주도정량공파청년회 회장 강창균 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MBC  
이사 겸 기획조정본부장**



**강 지 웅**  
(부·강재업·모·김아선)

MBC 이사 겸 기획조정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더 큰 영광과 발전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삼달향우회**  
회장 현 봉 추 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고산농업협동조합 전무**



**박 용 국**

고산농업협동조합 전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산농업협동조합**  
이·감사 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제 52대 신촌리장**



**고 구 봉**

제52대 신촌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재학·진석규·김재문**